

## 세이비어 교회 소식

-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추수감사주일 안내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에 배로 드립니다.  
노회 찬양제: 오후 5시에 뉴욕 남교회에서 노회 주관 시찰 찬양제가 있습니다.
- 새로운 예배당 건물 계약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2월 1일 - 마지막 예배, 12월 8일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드림)
- 구역예배 모임 안내  
11월 구역모임안내(11월 24일 - 롱아일랜드)
- 친교 안내  
오늘 친교는 추수감사주일 관계로 교회에서 준비합니다.  
다음 주 친교는 송명건 송은혜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합니다.

## 11월 봉사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예배	친 교	안 내
11/17		김유순	교회	한순자
11/24	허도행	배인순	우드사이드	한순자

## 예배 및 모임 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9시 30분	본당
주일예배(2부)	주일 오전 11시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00	본당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주일학교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시	중고등부 예배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9시 30분	성가대실
성경공부	목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오전 8시	1층 친교실
새 가족반	주일 예배 후	1층 친교실

## 이번 주 설교 요약

제목: 기쁨과 감사 그리고 기도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  
 기도제목: 1. 세상의 두 흐름 속에 신앙의 흐름에 속한 자가 되게 하소서.  
 2.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3.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1. 미국의 두 흐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미국의 역사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이 1864년 11월 4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정했고 1941년부터 그 주간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국의 추수감사절 속에는 청교도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국은 이민의 나라입니다. 유럽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수많은 이민자들이 건너올 때 모든 이민자들이 신앙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유럽에서 이민자들이 새로운 땅을 향해 건너올 때, 그들 중에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건너온 자들도 있었지만 풍요로운 땅을 찾아서 황금을 찾아서 건너온 이민자들도 있었습니다. 제임스타운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은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로운 땅에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 황금을 찾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건너온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스톤 지역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불되고 있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신대륙에 건너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황금을 좇는 것보다는 신앙을 좇아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신대륙에 건너온 자들이었습니다. 미국 역사에 있어서 이 두 가지 흐름은 지금도 미국 사회에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속에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가장 발전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또한 가장 교회가 많이 세워진 나라도 미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속에는 여전히 이 두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임스타운과 보스톤!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들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지금 어떤 흐름 속에서 살고 있는가?입니다.

2. 추수감사절의 신앙의 정신  
 오늘 추수감사주일 보내면서 추수감사주일을 만든 이 땅의 신앙의 선배들의 정신과 그들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에도 두 흐름이 있습니다. 단지 가족들이 모이고 칠면조 고기를 함께 나누고 추수감사절 세일에 무엇을 살까? 그런 흐름이 있지만,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이 땅에 먼저 온 신앙인들의 소중한 전통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추수감사주일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비로 한 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3. 기쁨과 감사의 조건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말씀도 두 가지 흐름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감사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기뻐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추수 감사절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기쁜 일이나 감사할만한 일이 있는 자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울 한해 풍성한 열매를 거둔 사람들은 기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감사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과 범사는 조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민은 초대 신앙인들이 울려 드렸던 추수감사주일의 그림은 사실 보잘것없고 그림이었습니다. 추수한 곡식은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함께 배를 타고 온 가족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의 예배를 올려 드린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받아 주셨고 그리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4. 기쁨과 감사 그리고 기도  
 끝으로 오늘 말씀의 세 가지 명령 중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근거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중심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을 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비결은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지난 주 헌금

\* 헌금은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11 월 행사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 노회 주관 찬양제  
 27일 - 추수감사절 연휴 관계로 수요일예배는 쉽니다.  
 28일 - 추수감사절

### 교회 지원단체

뉴욕 밀알 선교단, 주님의 식탁, 뉴욕 농아인 교회

### 구역별 선교사

롱아일랜드 구역	베이사이드 구역	플러싱 구역	우드사이드 구역
순회 선교	우간다	브라질	인도

담임목사 정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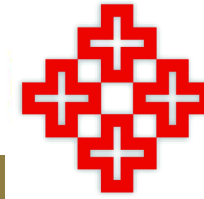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교육전도사 김호진 Paul Lee      지휘자/반주자 김타마라

275 Lakeville Road Great Neck, NY 11020

Tel : (718) 673-6448 / www.mysaviorchurch.com

2019년 11월 17일



**SAVIOR**  
 세이비어 CHURCH  
 교회

### 추수감사예배

	오전 9시30분(1부) 오전 11시(2부)	수요일예배(8시PM)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경배와 찬양 사무엘상 강해  말씀: 정요한 목사 기도: 김유순 권사
▲ 송영 Invocation	찬양대 Chorus	
▲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Together	
▲ 찬 송 Hymn	310장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64번(감사절)	
찬 송 Hymn	308장	
기 도(Prayer)	김유신 집사	
성 경 Scripture	살전 5장 16~18절	
찬 양 Praise	세이비어 찬양대	
설 교 Message	기쁨과 감사 그리고 기도	토요일 새벽기도회
▲ 헌 금 Offering	71장	고린도후서 강해 토요일 새벽 오전 6시
▲ 찬 송 Hymn	날 구원하신 주 감사	
▲ 축 도 Benediction	정요한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